

강진 마량항 개발 300억 투입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동'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2027년까지 경제·생활·인프라 개선 민간투자도 유치...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조성 주민 소득 창출

강진군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마량항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 300개소에 5년간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10일 재공모계획 발표 이후 1개월여에 걸친 짧은 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신규 민간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2월29일 공모에 접수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거쳐 이날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에 선정된 마량항에는 오는 2027년까지 300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산업 기반시

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강진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 마량놀투수산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급형 바다낚시어선 건조와 어선수리지원센터 등 민간투자사업이 더해지면 마량항은 명실공히 고품격 힐링 해양관광 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1차산업 위주의 어촌경제를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주민소득을 창출할 산업들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강진군은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관광·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힘을 더해진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이 국·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해 마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진행한다. 마량항 전경. <강진군 제공>

화순 우수한약재 유통센터 정상 가동

대표사 상상바이오와 3년간 위수탁 계약 체결

한 때 난항을 겪었던 화순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상상바이오를 대표사로 한 전남생약조합을 위촉하고, 위수탁자로서 선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3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정상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사용료는 연간 1억2100만원이다.

㈜상상바이오는 식품·건강 기능성식품 제조·공을, 전남생약조합은 한약재 수매, 위수탁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화순군은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제2공장 시설을 농식품부와 협의해 대여 승인을

받았다.

이를 통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에서 선별 가공된 우수한약재를 제2공장에서 활용 가능해져 작약 등 한약재 432t을 수매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대표사인 ㈜상상바이오에는 충남 당진 공장의 화순군 이전도 고려 중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와 원예브랜드사업의 정상화로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고 있다"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더욱 활성화해 약초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남평어린이집 '365일 무휴' 시간제 돌봄

하나금융그룹 보육 사업 선정 5년간 보육실 운영비 후원

나주시가 빛가람동에 이어 남평읍에서도 주말·공휴일 자녀를 돌봐주는 시간제 돌봄 보육실을 개원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나금융그룹에서 후원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에 선정된 남평어린이집에서 지난 15일부터 시간제 돌봄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따른 일·가정 양립 기반 마련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보육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부모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말·공휴일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내 별도 돌봄교실에서 전담 교사가 아이를 돌봐준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부터 5년간 교사 인건비, 냉·난방비 등 매년 1억원 이상 보육실 운영비를 후원한다.

돌봄 대상은 1~7세 취학 전 영·유아로 사전 신청을 통해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남평어린이집에서 운영팀 시장과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교직원,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실 개원식을 가졌다. <나주시 제공>

이용료는 시간당 3000원으로 자녀가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남평어린이집에서 운영팀 시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교직원,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실 개원식을 가졌다.

나주시장은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간제 보육실 개원에 몰심양면 후원해준 하나금융그룹에 감사드리다"며 "주말·공휴일 출근, 생업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고민 해소는 물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장성군,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이달까지 지원단 운영 호평...고령 농업인 우선



장성군이 추진 중인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농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수 전정가지와 고춧대, 깻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농가에서 자체 소각 처리할 경우 대형 화재나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

장성군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장성군연합회와 힘을 모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농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추진해 농업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파쇄한 부산물은 버리지 않고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 소각에 따른 화재 방지는 물론,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도 막을 수 있어 여러모로 이롭다.

파쇄지원단은 총 8개 조로 편성돼 임야 100m 이내 농가와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총 84헥타르(ha) 규모로 파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파쇄지원단 운영에 적극 동참 중인 후계농 연합회에 감사하다"며 "작업 간 안전 사고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귀농 고민된다면...농촌 체험하고 연수비 받고

나주시, 4월~11월 살아보기 사업...15일 이상 1인 최대 30만원

나주시가 문평면 명하 쪽빛마을에서 '2024년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무료 숙박에 15일 이상 체험하면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의

연수비도 지원한다.

2개월 단위로 1~3기까지 운영되며 작물 기르기, 농작물 활용 요리, 쪽 재배·염색 등 기존 마을 주민과 어울려 농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71(2가구) 모집은 25일까지 마감했다.

전남도민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 도시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나주시는 귀농·귀촌인 등 농촌 거주자 정책 지원의 하나로 명하마을 등 '귀농·귀촌 선도마을' 6곳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귀농 귀촌인과 원주민의 생활 편의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마을 기초기반 시설 조성, 빈집 정비, 경관개선,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강진군 "청년 창업자 자립 돕습니다"

가업승계 등 최대 2000만원...다음달 5일까지 접수

강진군이 청년 창업 지원과 가업승계 정착 기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청년 창업과 가업승계 지원 사업은 각각 총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 5명 내외의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인테리어, 환경 개선, 각종 홍보물품 제작, 첨단 시설 설치 등 현실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준다.

신청일 현재 만 19~45세 이하, 공고일 기준 2개

월 이상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4월 5일까지 사업 대상자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청년 지원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하우스 캠핑장 개장

어촌뉴딜 300사업 완료...10평형 숙박시설 8개 등

함평군이 돌머리 해수욕장 귀어귀촌빌리지를 '하우스캠핑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민간에 첫 개방하는 등 '돌머리 어촌뉴딜 300사업'을 완료했다.

함평읍 석성리에 위치한 돌머리 해수욕장 '하우스캠핑장'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인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 8개 주요사업 중 하나로 10평형 숙박시설 8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은 지난 2023년 9월 5일 전남도와 공동 발표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세 개의 기축 중 하나인 '해양생태축'으로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 미래지역발전 비전사업은 함평을 세로

로 나눠 서해바다와 연안은 해양생태축으로, 북쪽 산악지역과 함평천으로 이어지는 중앙부는 산악 녹지축으로, 광주와 인접한 동부권은 미래성장축으로 설정했다.

이상의 함평군은 "함평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돌머리 하우스캠핑장은 물론, 함평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해양 관광 시설을 마음껏 이용하고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 해양생태축의 큰 줄기인 돌머리지구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 툄립축제 가세~

하늘빛수목원 다음달 5~21일

장흥군은 하늘빛수목원이 내달 5일부터 21일까지 '제11회 툄립 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늘빛수목원은 전남 제8호, 전국 22번째 민간 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수목원에는 300여 종의 수목과 1000여 종의 초화류가 식재돼 있다.

최근에는 툄립을 비롯한 1000여 종의 꽃나무와 야생화가 꽃망울을 터트리 화사한 봄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하늘빛수목원은 약 10만㎡ 규모에 편백숲, 생태연못, 글램핑장, 물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목원 뒤편으로는 편백숲이 넓게 펼쳐져 있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